

코로나 사태에 방송가 '전전긍긍'

드라마·예능 제작에도 차질
일부 프로그램 촬영 중단
현장 스태프들 불안 호소도



코로나 여파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도 현실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사람 간 접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면서 방송사 핵심 콘텐츠라고 할 드라마와 예능 제작 현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방청 프로그램을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제작발표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촬영 등 제작 일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29일 방송가에 따르면 올해 방영 예정인 드라마 제작팀 일부는 촬영과 대본리딩 일정 조율이 들어갔다. 드라마 출연연예인과 스태프 등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장시간 모여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위험 가능성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다.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일부 드라마는 실제 촬영 장소로 삼은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스케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드라마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당장 방영을 앞두고 있거나 '생방송' 수준으로 촬영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드라마들은 노심조사하는 분위기에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이동하면서 야외 촬영이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여파에 촬영을 잠정 중단했다.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식사하는 JTBC '한끼줍쇼'는 2일부터 촬영을 하지 않으며, 스태프들이 직접 밥솥을 팔아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MBC TV '구해줘 홈즈' 또한 3월 말까지 촬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예능 또한 직격탄을 맞았다.

tvN 여행 예능 '잔내 투어'는 3월 16일까지만 기존 촬영분을 방송하고 이후부터는 상황을 지켜보며 방송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KBS 2TV '전국노래자랑'은 당분간 녹화를 중단하고 스페셜 편으로 방송을 대체한다.

촬영 현장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모든 방송을 멈추지 않는 이상 딱히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을 자주 씻고 스태프 전원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게 하지만, 촬영 현장은 긴장감

이 돈다"고 말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는 지난달 24일 모든 제작 현장에 방역 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협회는 "대중문화예술은 직업 특성상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촬영에 다수 인원이 모여 작업하는 현상이 대부분이고 지방 출장 촬영 등 이동 동선이 매우 넓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방송 관계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협조를 부탁했다. /연합뉴스

이수영, 11년만의 신곡 컴백... '날 찾아' 3일 발매

가수 이수영이 11년 만에 신곡을 들고 돌아온다.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이수영이 오는 3일 데뷔 21주년 기념 싱글 '날 찾아'를 발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별했지만 미처 사랑을 다 끝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곡으로, '발라드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수영 특유의 애절한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다.

1999년 1집 '아이 빌리브'(I Believe)로 데뷔한 그는 기습 절절한 발라드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스치듯 안녕', '라라라', '딩그리니', '그레이스'(Grace), '그리고 사랑해', '얼마나 좋을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불러 다수 음악 시상식에서 대상을 휩쓸었다.

그러나 2007년 발매한 8집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소속사와 갈등을 겪으며 이후 침체를 겪었다. 2012년 MBC 경연 프로그램 '우리들의 일밤 - 나는 가수다 II'에 출연해 무대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정글은 포기할 수 없는 직장"

400회 맞은 '정글의 법칙' 족장 김병만

2011년부터 스타들과 38개국 돌아
"인기 비결은 추억·대리만족·호기심"

"전 세계 약 40개국을 돌아다니며 뜨거운 자외선을 받아 눈노화가 빨리 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배어 그릴스, '달인' 김병만(45)에게 SBS TV 예능 '정글의 법칙'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프로그램이 됐다. 자신의 이름을 타이틀에 내건 이 오지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그에게 2013년 연예 대상을 안겨준 예능이기도 하다.

2011년 첫 방송을 시작한 '정글의 법칙'은 SBS TV '런닝맨' 다음으로 장수한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족장 김병만을 필두로 한 스타들로 꾸린 46개 기수가 38개국을 돌았다. 출연 연예인만 334명에 달하며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최고 시청률은 19.3%(2013년 1월 25일 아마다론)를 찍기도 했다.

김병만은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기자간담회에서 '정글의 법칙'을 통해 얻은 것들을 강조했다.

그는 "확장 시절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앞에 나가면 움츠러드는 캐릭터였는데 '정글의 법칙'을 통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촬영 때문에 눈노화가 더져오기도 했지만, 그는 "그 대신 전 세계 자연을 배웠지 않느냐. 그 어떤 안 좋은 것보다 제가 좋게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다"며 웃었다.

김병만은 촬영하며 아찔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스태프 40~50명이 깊은 정글을 들어가는데 배가 뒤집히기도, 엄청난 폭우와 태풍이 닥쳐 피신한 적도 있었다. 그는 "큰 사고 없이 400회까지 와서 다행"이라고 돌아보면서 "정글에" 다시 가기 싫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2013년 아마다론 편에서 총알개미에 물려 위험천만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한 김병만은 "그게 지나가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호기심이 들더라"라며 "중남미에 다녀오면 특종, 특 있는 나무를 경험한 걸 얘기해주게 되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은 그곳이 어떨까 궁금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정글에 가면 정신이 맑아진다. 도심으로 돌아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정글이 그리워진다. 그래서 '정글의 법칙'이 언젠간 없어져도 자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정글에서 뭔가를 가져왔으면 우리도 정글에 뭔가를 줘야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그는 정글을 "직장이자 포기할 수 없는



곳"이라고 표현했다. "이걸 봐주시는 시청자들이 있지 않냐"며 "그분들이 계속 지켜봐 주는 한 체력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글의 법칙'이 장수하며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로는 어른신들의 추억과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꼽았다.

"어르신들은 잘 보면 손으로 장어 잡았던 추억을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나리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대리만족을 느끼세요. 어린이들은 '똥 소녀의 모험' 같이 신기해하고요. 저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배경인 정글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뒤에 있는 자연 때문에 많은 분이 '정글의 법칙'을 계속 지켜봐 주며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특집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35 KBS 뉴스광장 50 인간극장		20 광중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09	3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MBC 뉴스특보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설맞 나는 오늘
11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가토 50 뽀빠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1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01	00 시사 직격 긴급로(재) <신천지는 어떻게 '슈퍼전파'가 되었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365
02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뉴스브리핑
03	00 남북의 창(재)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람(재)	
04	00 특집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차중우돌 만국 유랑기(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05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대화의 회열 스페셜	00 5 MBC 뉴스 25 콘텐트 박물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0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0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특별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50 우아한 그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6 시사타치 따따부따 코로나19 바이러스 비상
0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육탐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09	00 특집 KBS 뉴스 9 30 KBS 뉴스 9 45 특집 KBS 뉴스 9		50 배철수 점	40 아무도 모른다
10	00 공사창립기획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11	05 더 라이브 45 저널리즘 토크쇼 J(재)	4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언니네 생방송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50 창립특집 KBS결적 다큐멘터리 -가야제1번 강철 바다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50 UHD 특선 다큐 지구과학101	0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건물록 스페셜

EBS1

07:00 로보카 폴리	13:00 EBS 다크프라이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벌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댕 유치원	14:45 물랑	19:30 레전드 히어로-삼국전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30 아웅명명 귀여워(재)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윈디블즈	15:55 엄마 까투리(재)	<연젠가는 꼭 한번, 파나마 코스타리카 -대륙의 중심에 서다>
09:40 아웅명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가행
10:00 특집 부모특강-0.1%의 비밀	16:25 페퍼 피그(재)	<찾으러 가, 봄 1부 봄꽃만 꽃이더나>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댕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1:50 EBS 다크프라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최후의 생존, 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3:35 벌일 없이 산다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마사와 곰(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일 (음 2월 8일 甲辰) ☎ 010-9790-8237

<p>36년생 모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48년생 새로운 결과가 형성 될 수 있는 국면이다. 60년생 착각으로 인한 오만을 하기 쉽다. 72년생 관계가 개선되어야 진전을 보일 것이다. 84년생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빛을 보리라. 96년생 뜻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으니 삼가면 서 예의 주시하라. 행운의 숫자 : 38, 76</p>	<p>42년생 지나치게 파악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54년생 당장의 이득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길경으로 이어지겠다. 66년생 원만한 상태이니 현재의 형국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78년생 끝없이 반복 될 뿐이다. 90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02년생 생소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99</p>
<p>37년생 출입이나 진퇴의 균형이 필요하다. 49년생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61년생 다수자가 이마를 맞대고 생각해 의논해야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73년생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식이 유용하리라. 85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97년생 추세에 영합하려 하지 말고 숫대를 가져라. 행운의 숫자 : 01, 71</p>	<p>31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3년생 오매불망하며 기다렸던 바에 보람이 있을 것이다. 55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줌이 결과적으로 나를 것이다. 67년생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79년생 두고두고 잊지 못할 일이 생긴다. 91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안이 떠오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72</p>
<p>38년생 지혜로운을 발휘한다면 후환을 면하리라. 50년생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 판세이다. 62년생 입에 발린 덕보다 속 깊은 충고에 귀 기울여라. 74년생 비단 옷 위에 꽃을 더한 격이로다. 86년생 행운의 여신이 길을 안내하고 있다. 98년생 유색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66, 59</p>	<p>32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44년생 상대의 속사정은 따로 있다. 56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68년생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생산성을 제고한다. 80년생 준비하다가 하루해들 다 보내게 될 수도 있느니라. 92년생 파격적인 시도가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 67</p>
<p>39년생 포괄적인 조치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니라. 51년생 다른 것은 분류하고 비웃는 것은 모오자. 63년생 준비하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75년생 잘 하다가도 일순간에 방심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87년생 남의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이 옳다. 99년생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날 것. 행운의 숫자 : 40, 88</p>	<p>33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45년생 운용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57년생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69년생 재료가 좋아야 결과도 또한 훌륭한 법이다. 81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 93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굳이 행할 필요도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13, 60</p>
<p>40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2년생 충분한 분석과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4년생 조금만 비켜서면 만사가 해결된다. 76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볼 필요가 있다. 88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관여 말라 무모한 실행은 손해만 자초할 뿐이다. 00년생 입장의 차이에 따른 접어한 대립이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39, 68</p>	<p>34년생 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으려 말라. 46년생 이해득실만으로 존재를 결정함은 모순이 따를 것이다. 58년생 평시가 가졌던 의문이 풀리리라. 70년생 대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82년생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94년생 세대에 좌우되지 말고 본래의 뜻대로 하라. 행운의 숫자 : 20, 54</p>
<p>41년생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별로다. 53년생 혼란스러울 것이다. 65년생 계획이 구체적이고 내용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77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수긍하게 될 것이다. 89년생 관계의 개선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다. 01년생 겉보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0, 73</p>	<p>35년생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다. 47년생 구태의연한 과정을 해소할 대안이 절실하다. 59년생 썩 좋은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니 감안하고 대응하라. 71년생 쉽게 장담한다면 머지않아 곤란에 처해진다. 83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부를 것이니라. 95년생 쉽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0, 93</p>